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 통진두레놀이



김포통진두레놀이 개관



한강과 임진강에 접한 김포는 김포평야를 중심으로 논농사가 발달하였고, 그에 따른 두레패 조직과 활동이 왕성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곳곳에 두레패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농업의 기계화로 1960년대 후반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김포 지역의 농사소리와 농사법을 수집·정리하고, 1985년 김현규·윤덕현 등을 중심으로 통진면의 각 마을 주민들이 김포 두레 농요 재현을 시작하였다. 1986년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김포 두레농요’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윤덕현이 도지사상(개인상)을 수상하면서 전승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통진두레놀이’로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38호로 지정되었다. 1998년 예능보유자로 윤덕현이 지정되었으나 2008년 타계하고, 현재는 조문연이 보유자로 지정되어 맥을 잇고 있다. 2008년에는 통진두레놀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김포 통진읍 마송리(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8)에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세워졌다.



편성과 복색

편성은 깃발, 치배, 농사 연희자들로 이루어진다. 깃발은 영기 1쌍, 두레기, 농산기農者天下之大本, 오방기靑龍·白虎·朱雀·玄武·騰蛇, 20여 개 이상의 마을기 등 모두 40여개가 따른다. 치배로는 태평소, 팽과리, 제금, 징, 북, 장고, 소고 등이 구성되고, 농사 연희자들로 샌님, 농군, 새참꾼(아낙), 어린이, 각설이, 소 등이 등장하며 총 편성 인원은 80명 이상이 된다. 기수와 치배, 농군은 위아래 민복을 입고, 나머지 연희자들은 역할에 맞는 복장을 한다.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 모, 못줄, 쇠스랑, 싸리 빗자루, 우장, 부뚜, 밭채, 돛자리, 부리망, 절구, 노적가리, 용두레, 밀대, 짚삼태, 바가지, 독뚜껑, 광주리, 종가래, 고무래, 소명예, 길마, 조롱태기, 키, 함지박, 허수아비, 가래, 도리깨, 멍석 등 다양한 소품이 필요하다. 소품들은 농군을 비롯한 농사 연희자들이 역할에 따라 지거나 들고 나온다.

소리

두레의 구성원들은 등거리·잠뱅이 차림에 호미와 우장을 갖추고 풍물소리에 맞춰 논두렁에 서서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 과정 중 모찌기·모내기·논매기를 할 때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군들은 후렴을 받는다. 〈모 찌기소리〉는 후렴을 “졌네 켜네”로 받는 ‘졌네소리’이고, 〈모내기소리〉는 후렴을 “하나 둘이로구나”로 받는 ‘하나소리’이며, 〈논매는 소리〉는 ‘방아타령’·‘상사디소리’·‘몸돌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통진 두레놀이는 가래·쟁기·씨레·용두레 등 농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물꼬 싸움이 두레 싸움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흥미로운 놀이로 재연하는 등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놀이이다. 또한 모찌기, 모내기, 논매기 과정에서 부르는 농요는 김포 인근 파주·고양·양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농요와 그 맥을 공유하고 있으며, 가창방식과 사설의 구성에서 경기 소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학술적 평가

김포통진두레놀이는 농악, 농사소리, 농사법이 어우러져 한 해의 농사 과정을 신명나게 풀어낸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 농사를 짓는 노동의 과정에서 소리와 악기, 놀이가 적절하게 섞여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는 전통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농악 장단은 칠채를 비롯하여 육채, 삼채굿 등 경기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장단을 연주하고 있다.

농사소리 중 모찌기소리는 일명 <찢네 소리>로 양주시·동두천시·파주시 등 경기 북부의 모찌기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모내기소리는 경기 지역의 ‘열소리’와 ‘하나소리’ 중 ‘하나소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매기소리 중 <방아소리>와 <상사소리>는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경기 전역에서 불리는 소리이며, <몸돌소리>는 경기도 전역에서 불리는 김매기를 마무리하는 소리로 마지막에 새 쫓는 소리를 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김포통진두레놀이에서는 짧게 한 줄을 불러 소리를 마무리하는 특징이 있다.

김포통진두레놀이는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전통사회의 농사 과정을 잘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농악 장단과 농사소리를 통해 경기 지역의 지역성과 김포통진두레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 이 안내서의 설명은 『한국민속예술사전』(국립민속박물관 발간)의 ‘김포통진두레놀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보유자 조문연



김포의 농사소리와 농악장단을 입문하게 된 첫 번째는 故 윤덕현 기능보유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이다. 1978년 4-H 단체 활동을 하면서 농악경진대회를 출전하기 위하여 당시 김포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윤덕현 선생님께 처음으로 농악지도를 받게 되었다.

1980년대에 마을에서 농사일을 할 때에 어르신들의 권유로 농사소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마을에 초상이 날 때면 회다지 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소리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95년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김포통진두레농악으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이듬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하여 본격적인 보존회 설립을 추진하고 단원을 모집하면서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덕현 선생님 지도 아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

로 선소리와 농악장단을 배우게 되었다.

1997년 김포통진두레놀이이라는 이름으로 제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여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기능 보유자로 故 윤덕현 선생님이 지정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보존회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여러 초청공연과 자체 발표회를 통하여 보존 전승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 중 2008년 12월 윤덕현 선생님께서 병고를 끝에 별세하면서 보유자 공석이 생기게 된다. 그 이듬해인 2009년 전수교육 보조자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다.

전수교육조교로 지정 후 매주 보존회원 농사소리 및 농악장단, 농사동작에 대한 전수를 하면서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의 전반적인 시연 교육을 담당하고 진행하여다

2016년 11월8보유자로지정되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국두렛소리총회발표회 및 각 지방 무형문화재 초청 시연 및 김포통진두레놀이 자체 발표회를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승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첫째마당



입장

영기, 5방기, 두레기, 농산기, 마을기 등 모두 40여개의 기와깃발을 앞세우고 입장한다. 농악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입장하며 인사굿으로 인사를 한다. 차례는 태평소, 팽과리, 제금, 징, 북 장구, 소고 셋님, 농군, 새참꾼, 어린이와 각설이 순이다. 치배와 농사 연희자들 순서로 서서 삼채 등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입장하여 인사굿으로 인사를 한다. 입장하는 동안 농군들 일부는 마당에 논이 형태를 만들고 논갈이, 용두레질, 씨레질 장면을 준비한다.

둘째마당



논갈이 및 씨래질

논 여기저기에서 농군들이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한다.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흙을 쳐올리는 가래질과 소에 멍에를 얹어 논을 가는 쟁기질, 소에 씨레를 달아 논바닥을 고르는 씨래질, 못자리에 물을 퍼 올리는 용두레질을 한다. 이때 산님은 논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소에 멍에를 얹어 쟁기질, 못자리에 물을 퍼 올리기 위해 용두레질, 논바닥을 고르게 하는 씨래질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마당



볍씨뿌리기

씨레질을 한 눈에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한 뒤, 농군들이 볅씨를 뿌린다. 뒤에서는 소고쟁이들이 볅씨 뿌리는 동작을 흉내 낸다. 아울러 못자리 입종이 잘되어 풍년 농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원하는 고사덕담을 한다. 고사 덕담 중간에 풍물악기로 흥겹고 빠른 삼동지가락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고사덕담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를 마련하고 통진을 마련할 때/ 벼라도심어 보세 무슨 벼를 심어 보나 (중략) 여기저기다 심었으니 만사가 대길하고 소원성취가 발원이라/ 년년이 풍년 되게 해 주십소사

다섯째마당



모찌기

농군들이 논갈이 소를 앞세우고 나와 모찌기와 논갈이를 한다. 이때 농군들은 선창자와 후창자로 나뉘어 모찌기 소리를 한다. 선창자가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찌 보세” 하고 소리를 메기면 후창자들은 “졌네 찼네 나도 한 춤을 찼네”라고 소리를 받는다.

모찌기소래는 다음과 같다.

(반)졌네 찼네 나도 한 춤을 찼네

(메)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찌 보세/ 농사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오늘날은 여기서 놀고 내일 날은 어디 가서 노나/ 일출 동방에 해 돋으니 한 춤이라도 빨리 찌세

여섯째마당



모내기

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농부들이 자신의 감각으로 마늘모(막모) 간격으로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를 하며 모내기 소리를 한다.

모내기소리는 다음과 같다.

(받)하나 허니 하나 둘이로다

(메)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세상에 태어나 농부 농사 안 하고 무엇 하나/ 농자는 천하지 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모를 내세 모를 내세 마늘모로 모를 내세/ 봄 들었네 봄 들었네 건너 산천에 봄 들었네/ 푸른 것은 버들이요 누른 것은 찢꼬리라/ 황금같은 저 찢꼬리 임진란을 만났던지/ 황금 갑옷 들춰 입고 양유간을 왕래하네

일곱째마당



새참먹기

새참꾼인 아낙네들이 새참이 든 광주리를 이고 와서 논 바깥에 새참을 차려 놓는다. 두레의 우두머리가 새참을 먹으러 가자고 소리를 치면 농군들은 논 밖으로 나오는데, 논에서 나올 때 손과 발을 씻고 우장과 샷갓을 벗어 들고 나온다. 새벽부터 시작한 모내기 작업 중 새참 시간은 간단한 먹거리와 막걸리 그리고 농악 놀이로 노동의 피로를 씻고 휴식으로 충전을 하는 시간이 된다.

여덟째마당



물고싸움연행과정

한 종가래꾼이 남의 논물을 자기네 논에 대려고 논두령을 뚫다가 들켜서 종가래꾼끼리 싸움을 하는 것이 논 주인끼리의 싸움으로, 다시 마을 간 두레싸움으로 변지는 장면이다. 용두레로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려는 물고싸움이 두레싸움으로 변지면, 처음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겨루다가 나중에는 상대 마을 두레기의 썰장목을 먼저 뽑는 마을이 이기는 싸움으로 바뀐다. 썰장목을 빼앗긴 마을은 원통해하지만, 나중에 썰장목을 돌려받고 이긴 마을 두레기에 절을 하면 두 마을 두레패가 어우러져 화합의 한 마당을 벌인다.

아홉째마당



김매기

두레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이 다시 힘을 합쳐 김매기를 한다. 김포 지역에서는 김매기를 3번 하는 데, 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김을 매 나가다가 논이 좁아지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 원의 형태를 만들어 김매기를 끝낸다. 선창자와 후창자로 나누어 김매기소리를 하는데 <방아소리>, <상사디소리>, <몸돌소리>의 순서로 부른다. 각각의 후렴은 “에헤 에헤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에렐렐 상사디오”, “에이여라 몸돌려”이다.

열번째마당



벼베기

논의 벼가 익으면 허수아비를 세우고 새끼줄로 만든 채찍으로 바닥을 치면서 새를 쫓는다. 농군들이 낫을 들고 들어가 벼를 베고, 농부들은 벤 벼를 탈곡하기 쉽도록 모아놓기도 하며, 소 등에 싣고 나르기도 한다. 풍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흥겨운 풍물 연주가 계속된다. 삼채 가락과 삼동지 가락을 번갈아가면서 연주한다

열한번째마당



탈곡하기

벼를 벤 후 태질로 벼를털고 떨어진 낱알의 수염을 도리깨질로 다듬은 후 부뚜와 키를 이용하여 벼알을 고른다.

열두번째마당



탈곡하기, 섬쌓기

섬을 저울에 달아 만들고 논 주인에게 섬을 이고 간다. 노적가리를 만들어 탈곡한 곡식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농악장단을 치며 판굿을 한다.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기능보유단체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11 경·기·문·화·재·발·견·시·리·조

김포통진두레놀이



경기문화재단

- ▶ 경기문화재단이 제작한 ‘김포통진두레놀이’ 영상기록물
경기학연구센터(cfgs.ggcf.kr) > 센터자료 > 영상자료에서 볼 수 있다. 2008 전후에 제
작된 50여분 분량으로, 김포통진두레놀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기록물이다.



▶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전경

통진두레문화센터 전시관의 일부 ▶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들,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이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세상에 태어난 농부, 농사 안하고 무엇하나.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농사캐나 짓는다는 평야지대를 다녀 봐도 권농가나 풍년가 듣기가 힘든 요즘, 아직도 모내기·김매기·벼베기철 등 농번기면 걸쭉한 선소리 가락에 흥겨운 농악이 울려 퍼지는 곳이 있으니, 바로 경기 김포 통진 들판이다. 한 반도 중허리를 달려온 한강이 서해로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자양분을 부려 놓는 김포평야 한가운데 자리한 통진은 우리나라에서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도시화와 기계화로 전국 대부분의 농촌이 옛 모습을 잃어 가고 있지만, 유독 통진에 그 유산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김포가 낳은 불세출의 선소리꾼 윤덕현웅(2008년 작고)과 그를 따르던 지역주민들의 공이 컸다. 평생을 두레놀이에 바친 윤웅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함께 두레패를



꾸렸고, 통진두레놀이를 알리기 위해 각종 민속경연대회에도 참가, 1995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년 농사를 논밭이에서부터 벼심 쌓기까지 12마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통진두레놀이의 특징은 김포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후덕한 인심에 힘입어 놀이 자체가 매끄럽고 경쾌하다는 것. 여기에 새참먹기·물꼬싸움 등 농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로애락까지 익살과 해학으로 표현해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출처 : 『농민신문』 (2010년 10월 15일자 기획기사)

김포두레놀이보존회



김포평야는 한반도 4대 평야로 불리던 곳으로 5000년전 최초 쌀 재배지라는 학계의 인정을 받은 최대의 곡창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의해 예전에 드넓었던 평야지대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입니다. 김포의 전통 농경 문화 유산 또한 없어지거나 전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옛 무형 자산을 보존·계승하기 어려운 실정에도 김포통진두레놀이인 김포의 농경 문화를 전승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제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23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270여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포 통진두레놀이 보존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의 전승과 보전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는 매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및 김포 지역 공개 시연, 전국두렛소리총회 및 각 지방 문화재 초청 공연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통 모내기 체험, 12마당시연 및 가마솔 밥짓기 경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존회장

보존회 주소 :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8

연락처 : 031-981-5050